

안녕하세요? 바닷길 동물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글. 남종영

“제주도에서 왔다고 해서 제돌이예요.”

쇼를 마친 돌고래 한 마리가 수족관 내실로 들어와 수조 밖으로 주둥이를 내밀었어요. 2012년 초 서울대공원이었죠.

제돌이는 2009년 제주도 신풍 앞바다에서 잡힌 남방큰돌고래랍니다. 그해 서울대공원으로 넘겨져 공연 생활을 시작했죠. 어느새 묘기가 늘어 홀라후프 돌리기, 꼬리 들고 헤엄치기, 노래 부르기 등을 소화하며 원숙한 ‘짱대’가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돌고래가 유명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돌이’라는 이름조차 사육사들끼리 편하게 부르는 명칭일 뿐이었으니까요.

야생 남방큰돌고래의 삶

제돌이를 만나기 1년 전, 저는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고래와 물범 등 해양 포유류를 연구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현 고래연구센터)의 남방큰돌고래 정기 조사에 동행했죠. 조사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돌면서 돌고래를 찾아다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운 좋게도 제주공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애월 앞바다에서 돌고래 네 마리를 목격할 수 있었죠. 우린 해안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그 돌고래들을 따라갔습니다.

한경 앞바다에 이를 즈음, 반대편에서 수십 마리는 죽히 될 법한 돌고래 떼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돌고래 네 마리와 함께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고래 떼가 네 마리의 돌고래와 만나더니, 기수를 돌려 남쪽으로 헤엄치는 게 아니겠어요? 돌고래 떼는 친구 마중이라도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고래연구소의 김현우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합집산(fission and fusion)이라는 사회적 특성입니다. 제주도의 남방큰돌고래 개체수는 114마리인데, 114마리가 어떤 때는 5마리가 되고 어떤 때는 70마리 이상으로 큰 무리를 이뤄요.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었다가 흩어지는 행동을 반복하죠.”

이합집산을 하는 대표적인 종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광장에서 군중집회를 열기도 하잖아요. 각 모임의 규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벌이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우리는 모슬포항에 도착했어요. 10여 분이 지나자 돌고래 떼도 도착하더군요. 아마 네 마리의 돌고래도 함께 왔겠죠. 반나절 만에 애월 앞바다에서 모슬포까지 50km 가까이를 헤엄쳐서요. 돌고래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돌이도 한때 바다에 살던 돌고래예요. 바다에서 9년을 살고 육지로 끌려왔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에 걸렸고, 수족관으로 넘겨졌어요. 돌고래 포획은 불법입니다. 생선 잡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도(흔히 해양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고 구조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어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대신, 수족관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 수족관이 어민들에게 미리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알려 달라. 후한 값을 쳐주겠다.”라고 말해 놔거든요. 이렇게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수족관으로 잡혀 들어갔죠. 인간에게 사로잡힌 제돌이의 삶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2012년 서울대공원에서 처음 만난 제돌이. 이마에 있는 굵은 자국은 야생의 바다에서 즐겁게 놀던 흔적일 테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고통을 맨몸으로 버텨야 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돌고래의 본성과 행동이 수족관이라는 공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족관은 돌고래에게 너무 좁아요. 제주도의 돌고래가 저와 함께 달렸듯, 돌고래는 하루에도 수십km를 이동하죠. 그런 동물이 기껏해야 수영장 한 칸밖에 안 되는 곳에 갇힌다니, 이는 흡사 사람에게 평생 팔다리를 굽히고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둘째, 어두운 바닷속에서 돌고래는 음파를 사용해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수조 안에서 돌고래가 음파를 쏘면, 음파는 벽에 부딪혀 이내 되돌아오고 말죠. 결국 돌고래의 감각기관은 혼란에 빠지고 사용 불능이 돼요. 미국의 돌고래 보호 운동가 릭 오배리(Ric O'Barry)는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마치 사방이 거울로 만들어진 집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셋째, 혼자 또는 몇 마리만 수족관에서 사는 방식은 돌고래의 사회적 본능에 맞지 않습니다. 돌고래는 이합집산을 하면서 고도의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동물이니까요.

전시 부적합종부터 자유를

동물원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도 일부 왕족과 귀족의 수집욕을 채우려고 만든 실내 동물원(menagerie)이 있긴 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작은 시설이었죠.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기념품'으로 잡아 온 동물을 시민에게 보여 주고자 대형 시설에 가두며 비로소 '동물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1752년 오스트리아 빈 쇤브룬궁전에 건립돼 1765년 일반에 공개된 쇤브룬동물원과 1793년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연 파리동물원을 거쳐, 1828년 영국 런던동물학회가 리젠트파크에 현대적인 양식의 런던동물원을 세웠습니다. 어류를 모아 전시하는 수족관 또한 같은 시기에 생겨났고, 이는 20세기 들어 돌고래와 물범·바다사자 등 해양 포유류를 포획해 전시하는 해양 포유류 공원(marine mammal park)으로 확장됐죠.

하지만 야생동물을 한곳에 모아 놓고 전시하는 일은, 이들의 본능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동물원의 삶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으며, 가족 및 친척 그리고 동료와의 사회적 생활은 박탈당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은 동물에게 정신질환과 행동학적 문제를 일으켜요. 대표적인 증상은 의미 없이 우리 안을 맴도는 '정형 행동'이에요. 이 밖에도 자해, 구토, 우울,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행위), 틱(tic,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복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죠. 이렇게 동물원 내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과 이상행동을 '주코시스(zoochosis)라고 불러요.

동물원에선 동물의 지식과 기술도 쓸모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코끼리는 야생에서 가모장 코끼리를 중심으로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해요. 자연히 코끼리 사회에서는 길 찾기에 대한 감각, 수원지에 관한 지식, 사자가 나타났을 때 새끼를 보호하는 기술 등이 공유되죠. 그러나 동물원 안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연마될 수도 없고,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현대의 동물원 또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어요. 1970년대 이후 환경운동과 동물권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금은 많은 동물원이 스스로를 '생태교육 기관'이자 '야생 보전 기관'이라고 내세우죠. 보기



힘든 동물을 직접 마주할 수 있으며, 동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해요. 하지만 얼마나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진 의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동물원의 방문객은 사육 시설마다 3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동물을 한데 모아 놓은 장소를 백화점 둘러보듯 쓱 보고 가 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동물원이나 미국의 샌디에이고동물원·브롱크스동물원 등 동물복지에 비교적 선진적인 동물원은 그들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물원 내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야생 서식지 보전 작업에 참여하는 식이죠. 이런 동물원들엔 연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원들은 멸종위기종의 야생 방사, 서식지 관리를 담당해요. 동물원이 스스로 '보전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죠.

이런 노력이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걷어 낼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많은 종 가운데 '동물원 전시 부적합종'부터 야생 방사하거나, 야생동물 보호 구역(sanctuary)으로 보내거나, 동물원 내 번식을 중단하는 거예요.

동물원 전시 부적합종은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종'을 말해요. 학계에서 이 개념이 정의된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돌고래, 코끼리, 북극곰, 그리고 침팬지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을 전시 부적합종으로 꼽습니다. 고도의 사회생활 본능(돌고래·코끼리·유인원)을 비롯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기능(유인원)이 있는 이들은, 관람객의 시선을 몹시 불편해해요. 기후가 맞지 않고(북극곰), 넓은 서식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아왔기에(돌고래·북극곰) 동물원을 마치 감옥의 바깥은 독방처럼 느끼죠.

전시 부적합종을 동물원에서 해방하려는 움직임은 돌고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선 1990년대 정부가 수족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수족관들이 하나둘 돌고래 감금을 포기했어요. 지금은 영국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돌고래가 한 마리도 없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9년 수족관의 돌고래 신규 도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죠. 현재 프랑스, 인도, 헝가리,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지에서도 돌고래의 공연이나(수족관 내) 자체 번식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고요.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돌고래들

2012년 서울대공원의 어두운 수족관 내실에서 제돌이를 만나고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기사를 썼어요.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때, 이를 연구한 국내외 전문가를 인터뷰했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바다에 임시 가두리를 만들어 차가운 수온과 거친 파도에 적응하게 하고 살아 있는 돌고기를 쫓아 잡아먹는 사냥 훈련을 마치면, 돌고래 야생 방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돌이는 야생에서 9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곧 몸에 익을 거예요.”

1년여의 훈련을 거쳐 제돌이는 2013년 여름 제주 바다로 돌아갔어요.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 'I'이라고 표시해, 제돌이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죠. 제주 서귀포의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춘삼이·삼팔이도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갔답니다.

2015년에는 같은 수족관 출신인 태산이·복순이도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섯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는 원래 함께 살던 야생 무리에 무사히 합류했고, 삼팔이·복순이·춘삼이는 새끼를 출산하기도 했죠. 2017년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서 오래 살았던 금등이·대포도 방류됐는데, 아쉽게도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20년 가까운 수족관 생활 탓에 야생의 생활방식을 잊어버려 길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제돌이가 야생으로 돌아가고 1년 뒤, 제주 바다를 다시 찾았어요. 김녕 앞바다를 항해하는 하얀 요트에 몸을 실었는데, 멀리에서 돌고래 떼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죠. 망원경을 꺼내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관찰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I'이라는 숫자가 불쑥 솟아올랐어요. 바로 제돌이였죠!

제주 사투리로 돌고래를 '곰새기'라 해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을 쉴 새 없이 빙빙 돌아요. 제주도 해녀들도 돌고래를 곧잘 만납니다. 바다 밑에서 전복을 캐던 해녀들은 돌고래를 마주하면 “곰새기 와서, 곰새기 와서.”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 길을 비켜주죠. 돌고래들은 유유히 해엄쳐 지나가고요.



2013년 제주 김녕 앞바다의 가두리에서 야생 적응훈련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가기 직전의 제돌이와 춘삼이. 춘삼이는 사람들을 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고, 그 너머로 제돌이는 해엄을 즐기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사는 방식은 예부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시간 동안 인간과 동물은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대면할 때면 옆으로 살짝 피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동물에게 잘못했을 때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동정하고 보살폈죠. 아직도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본능적인 삶을 박탈당한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슬픈 표정을 보았다면, 또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동물권을 향한 긴 여정에 몸을 실은 것이랍니다. ■

199쪽에서 실전 문제를 풀어 보세요!

남종영 환경 논픽션 작가, 《한겨레》 기자.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나면서부터 지구온난화와 동물에 관한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